

#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역사에 대한 생각

권태경 (홍신대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역사분과장)



“기독교 역사란이란 세가지 관점, 즉 구속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을 의미한다.

구원사관이라 함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을 말하며,

섭리사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정물,

즉 역사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포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역사란 무엇인가의 문제는 학자들간의 약간의 논쟁이 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역사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의미하지만, 역사를 단순히 과거의 사실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역사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사의 사고와 해석이 필요하다. 이 해석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다.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이 관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관점(전제, presupposition)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역사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이다. 역사 연구에 있어 전제는 불가피하다. 이 전제는 역사 이해와 해석에 기초가 된다. 이 전제를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인정 혹은 콘택트 렌즈에 비유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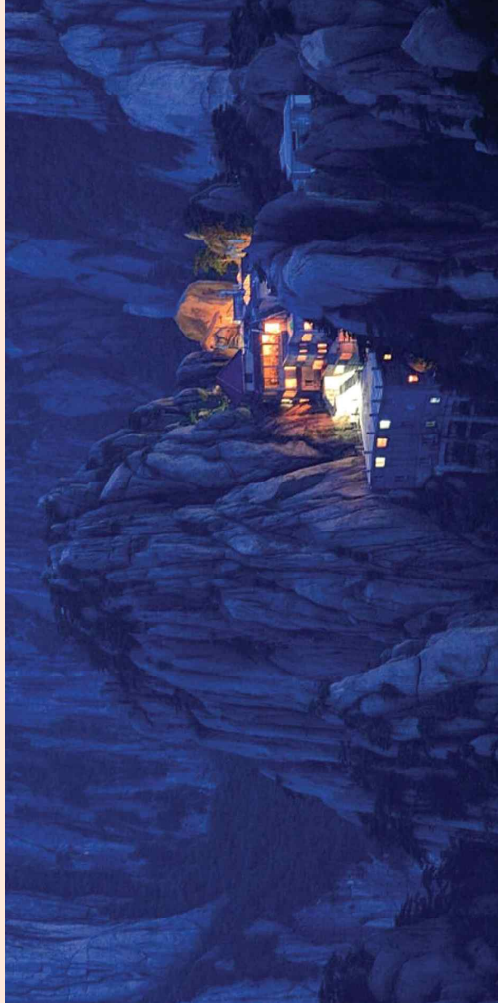
역사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유형 가운데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 관점의 역사를 주장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의 역사이해를 위해 성경적 조명이 요구되는데, 이를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이라 한다. 무엇보다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 근거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본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개념이 기독교 세계관과 역사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이며 출발이다. 기독교 역사관이란 세가지 관점, 즉 구속사(구원사관), 섭리사관, 목적론적 사관을 의미한다. 구원사관이라 함은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믿는 것을 말하며, 섭리사관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의 주권과 정물, 즉 역사과정에서의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믿는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목적론적 사관은 역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포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한다는 점이다.

## 시대의 이념을 자신의 이념으로 여긴 개혁자 마틴 루터

대표적인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에게 역사는 말 위에서 창 시함을 하는 하나님의 무대였다. 루터는 역사적 사건이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의미(meaning)를 갖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비(mystery)이기도 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루터는 역사적 사건들을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분명해진다고 하였다. 신앙을 가진 자들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역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이다.

루터의 역사이해는 기본적으로 그의 신학사상과 관련이 있다. 한편, 루터는 하나님의 행위가 감추어진 의미를 지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역사 속에서 숨겨계시는 분으로 보고 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숨겨진 의미는 루터의 역사관에서 중요한데, 루터는 하나님을 숨겨진(hidden) 하나님과 계시된(revealed) 하나님으로 설명한다. 하나님은 역사에서 숨겨져 있지만, 피조물을 통해 계시됨을 주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는 믿음과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은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시며,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루터는 역사를 창조부터 심판에 이르는 하나의 드라마로 보았다. 즉, 이는 역사의 종말론적 이해를 말하는데,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는 학자는 독일 예를 랑겐 대학 교수인 알트하우스(Paul Althaus)이다. 그에 의하면, 루터의 신학은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는 편에서 볼 때, 철저히 종말론적이다. 루터에 의하면, 역사와 세상은 종말에 이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루터는 카톨릭에 대한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자신의 시대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하였다. 루터는 결국 역사의 종말이 도래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하였다.

### 오늘 현재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개혁자 칼빈

종교개혁자 가운데 칼빈의 역사에 대한 생각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루터의 역사이해 보다 더 발전적인 구속사작이며 종말적인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칼빈에게서 보여진다. 칼빈은 먼저 일반적인 세속적 역사이해에 잘 못된 전제를 지적한다. 그것은 역사가 우연의 산물이 라는 운명(fortune)과 역사를 결정론적으로 보는 운명(fate)을 말한다.

칼빈의 역사이해는 루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보면 더 발전적이다. 칼빈은 역사에서 감각(a sense of destiny)을 언급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결정적인 순간(a kairos)이라고 하였다. 필자가 볼 때 이 역사의 순간(때)의 개념은 우리에게 시대에 대한 사명 의식을 갖게 하며, 개혁의 원동력과 정당성을 제 공해 준다고 본다. 이처럼 칼빈에게 카이로스(a kairos)와 관련된, 역사의 현재성은 그의 역사이해에 중요한 전제였다.

칼빈의 역사이해에 있어 분명히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적 위엄을 드러내면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 하면서, 스스로 역사의 주권자로 선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과 끝으로 역사의 주권자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한다. 이 섭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해당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피심을 말한다.

루터와 칼빈의 역사이해를 비교할 때, 역사에서 인간의 역할에 대한 문제에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루터에 의하면, 세계의 역사에서 인간은 경이감을 가진 구경꾼이었다. 그러나 칼빈에 의하면 인간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참여자였다. 루터주의자들의 역사이해가 신화적이고 논쟁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칼빈주의 역사가들은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역사를) 교회사에 국한하기 보다는, 교회의 운명을 정치와 사회의 발전과 관련시키고 있다. 이 런 면에서 교회와 종교적 문제가 아닌, 세상과 정치적인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칼빈은 루터보다 더 근대적이라고 본다.

칼빈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인간이 역사에 있어서 루터처럼 구경꾼이 아닌, 역사의 참여자로 보고있는 점은 칼빈의 역사이해에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칼빈이 역사에서 인간을 단순한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않고, 하나님 나라를 원상해 가는 역사의 변화와 개혁의 과정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인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칼빈은 루터와 다른 역사이해 방법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시대의 역사해석에 있어 새로운 패턴의 초석을 마련한 사람으로 평가한다.

종교개혁자들에게 보여진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역사의 동인을 하나님으로 보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과 섭리, 그리고 역사의 종말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루터와 칼빈에서 나타난,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신학적 진제와 관직, 통찰력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는 무엇보다 인간에게 자신(개인), 사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한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근대 포스트 모던이후, 학문과 역사의 세



권태경 현재 홍익대학교 교수이자 기독교문화연구원 이사장으로서 성경, 영국의 세인트 앤드루 대학교, 미국의 칼빈대학교 연구원이었으며, 저서로는 「대학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세계관과 역사」, 「장년은 늘 나를 쫓게 한다」 등이 있다.

속화는 기독교적 안목으로 역사를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요컨대 우리에게 요구되는 기독교적 역사이해는 삶과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바른 기독교적 역사이해를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필자가 볼 때, 기독교적 역사이해에 중요한 전제는 성경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이다. 요컨대 바른 기독교 역사이해를 우리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에 근거하여 보다 폭 넓은 역사적 재 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역사관이 단순하게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고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바른 기독교적 이해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의 전 우주적 영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인간과 역사에 대한 기독교 안목은 이원론적 사고를 극복하고, 나아가 기독교적 학문이 지향하는 신앙과 삶, 그리고 학문과 경건의 균형성을 갖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시대(역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일을 찾아 사명감을 갖고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기독교적 역사 이해이다. 역사는 삶의 문제이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기독교 사관의 핵심인 구속사관, 십리사관, 종말사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목적하심의 경협을 삶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